

#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603호 2006년 11월 16일 목요일

주가	환율	금리
<b>+5.17</b> 1,412.54 (코스피지수)	<b>+4.40</b> 941.50원 (원/달러)	<b>-0.02</b> 4.71%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06.54	(-1.55)
다우(14일)	12,218.01	(+86.13)
나스닥(14일)	2,430.47	(+24.28)
닛케이	16,243.66	(-46.08)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82엔	(+0.50)
유로·달러 환율	1.2809달러	(-0.02)
3년만기 회사채	5.03%	(-0.02)
물금리	4.47%	(보합)

## 문화수도 후원통장 나왔다

광은 '새희망' 등 판매액 0.05% 적립

광주은행은 15일 광주은행 시청지점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정태석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문화수도 후원통장' 발매식을 갖고 판매에 들어갔다. 1차로 올해 말까지 판매하게 될 문화수도 후원통장은 '해피라이프예금'과 '새희망적금' 등 2가지 상품으로 판매금액의 0.05%가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위한 성금으로 적립된다. 즉 2천억원이 판매될 경우 1억원이 성금으로 자동 출연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후원통장 가입자에게는 문화 예술회관 우수공연 무료 관람권 증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통장 발매로 후원금 조성은 물론 광주 문화수도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 제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아동·학생가구 전문업체 '토펜'이

광주 북구에 'SASASHOP' 오픈

아동·학생가구, 침구 전자기업(대표 채희중)인 (주)SASA & 토펜이 국내 아동가구업계로서는 처음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전시룸 'SASASHOP'(사진)을 오픈했다. 전시룸은 연면적 250평에 3층으로 지어져 본사가 직영한다. 1층은 시리즈별 상품, 2층은 2인용 책상 등 공간효율적인 상품, 3층은 아플렛 상품들이 전시돼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채 대표는 "전시룸 오픈과 함께 품질개선과 전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특히 아동·학생층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1588-4434.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환율하락·원자재가 고공행진... 수출중소 '뉴모텍'가보니

# "일할수록 손해지만 끝까지 버텨야죠"

"정부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두 다 어려워 하는 상황에서 무슨 수가 있었어요, 무조건 버텨야죠."

광주 하남산단단지내에서 만난 전동기 생산업체 뉴모텍 전홍기(54) 대표의 말에는 끈혹스러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전 대표는 "30여년 기업해오는 동안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모텍은 수년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원자재가 대 최고인 원·달러, 원·엔 환율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100% 수입품으로 총당하는 전동기용 구리는 2년 전에 비해 원자재가가 4배 이상 올라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전동기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구리의 한달 소요량은 250t으로, 1t당 가격은 7천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전 대표는 "원자재가가 오르면 만큼 회사 살림이 어려워진 셈"이라며 "그나마 1당 가격이 8천800달러를 웃돌다가 좀 떨어진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회사살림 이후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수출비중을 늘려온 뉴모텍은 일본을 비롯, 미국·태국·중국 등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 "수출 단가 안맞아 죽을맛" 해외납품 포기 삼성과 상생프로젝트 가동... 재도약 기대

의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3천만불 수출탑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출드라이브가 지난해부터 원·달러, 원·엔 환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제품이 절렸다. 1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보다 80원, 원·엔 환율은 70원 낮진 떨어져 재산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 대표는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해 일본지역에서 현지업체와의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25% 떨어졌다"면서 "특히 수출단가가 맞지 않아 몇몇 일본업체들에 납품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모텍의 '투혼'은 위기에서 더욱 빛났다. 전사적인 원가절감운동을 펼쳐서 한편 지난 4월부터 삼성광주전자와 '하이레벨(Hi-Level)'이라는 상생프로젝트를 가동, 공정개선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차 프로젝트가 끝나는 오는 12월이면 6억

여원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또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수출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에 관한 조치도 이미 마련해둔 상태다. 전동기용 콘덴서 등 전자기 부품에서 납·수은·6가크롬·카드뮴 등 6종의 환경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뉴모텍은 올해 설비투자에 2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최절전용 및 트립세탁기용 콘덴서 등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850억원까지 매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973년 설립된 뉴모텍은 300여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150여종의 전동기를 연간 1천만개 생산해 글로벌기업으로 받돋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하남산단내 뉴모텍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에어컨·세탁기용 전동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금호, 대우건설 인수 완료

6조 4,000억 본계약 체결 "10년내 세계 톱10 건설사로"

금호아시아나는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신혼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과 김우석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건설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 인수한 대우건설 주식 72.1%(2억4천466만 주)의 가격은 6조 4천255억원이며,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달 주식양도와 잔금수령 등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대우건설 매각에서 국내외 권위있는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경영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위임돼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향후 10년 내 대우건설을 '글로벌 Top 10 조우량 건

설회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기술개발 투자, 적극적인 제휴 등과 함께 해외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과 기존의 건설 계열사인 금호산업 건설사업부를 합병하지 않고 별도 법인으로 유지해 2개 건설회사 체제로 운영하며 '대우'라는 브랜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의 영업부문간 협력을 통한 수주확대, 상호간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공유, R&D 협력 강화 등 두 회사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모범 어업공동체 90곳

사업비 118억원 지원

자율적으로 어족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를 꾀하는 모범 어업공동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90개 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선정했다"며 "이들 공동체에는 내년 각각 1억~3억원씩 모두 118억원의 육성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올해의 98억원(60개소)보다 2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금어기를 연장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고, 공동 판매 및 생산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어업 형태를 말한다.

한편 오는 22일과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열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女經協 광주·전남 지회장에 김향덕씨 선출

김향덕(53·여성문화사 대표)씨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5대 지회장에 선출됐다. 15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7차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씨는 재직회원 79명 가운데 43명

(54%)의 지지를 얻어 3년 임기의 새 지회에 당선됐다. 또 지회는 ▲이사=조애옥·정광희·윤명희·유정숙·이영래·이숙희·배문자·박추희·노종현·김영숙씨 등 10명 ▲대의원=배숙희·정행숙·이정남·김주영씨 등 4명을 선출했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힘쓸 것"

김향덕 새지회장

"5년여의 임원을 거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5대 지회장에 선출된 김향덕씨는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지난 김 회장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수주기회 확대 ▲혁신형기



업 육성사업과 스타기업 발굴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한 회원 지위향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희공대 디지털에네이션 디자인 학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지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남편 문길원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주주무궁화관광** ☎064-744-1109

**프리미엄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 결혼 기원! 베트남결혼·웨딩이  
힘찬면 현무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02-980-8291